

# 尹, 올 5·18 메시지는 “통합”...광주발전 비전도 언급할 듯

### 대통령실 “5·18정신 계승 유효” 당정 광주행 특별열차 운행 검토 윤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국무회의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미래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5·18에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말하고 행동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 가치 수호를 골자로 하는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당시 기념사 초안에 없던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내용을 손수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1963년 베를린 연설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주 방문 때 GTX 특별열차를 편성,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명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과 동행했다.

올해도 여당 의원뿐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 참모진이 대거 광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특별열차 운행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

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관련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북돋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관련,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발언에 대해서도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화한 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9월”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국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미루고 자진사퇴 압박 왜?

### 당원권 정지엔 ‘지도부 공백’ 우려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자진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두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

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 해법’ 관련 언급에 대해 “많은 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구태어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부 리스크’ 우려와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결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결위 시

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당원권 정지는 결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최고위 파행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공백은 아니다. 일부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인간이 되나”라며 말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해준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 정비해 삼기일전하겠다는 포석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연합뉴스

## 국힘 “윤석열차 정상궤도로 쉼없이 달려”

### 윤석열 정부 1주년 세미나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1년 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바로 잡고 있다”며 “통계 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복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도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며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무뎠던 걸 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동 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하는 것을 경험했고, 저희는 더이상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 시간 유연화가 주 69 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17일 5·18묘지 참배

### 강기정 시장 등 함께 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오는 17일 오월영령에 참배한다.

국립5·18민주묘지는 문 전 대통령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예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예약한 날짜와 시각은 오는 17

일 오전 11시 30분이다.

이날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하는 인원을 비롯해 추후 일정은 미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인 2017년, 2019년,

2020년 세 차례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을 추모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1년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참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엔제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